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

최 원 선임연구원

2012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06조 1,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,200억 원 증가함.

- 가계대출 잔액은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난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줄어들어 1,400억 원 감소한 72조 9,000억 원을 기록함.
- 기업대출 잔액은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6,500억 원 늘어난 33조 2,000억 원을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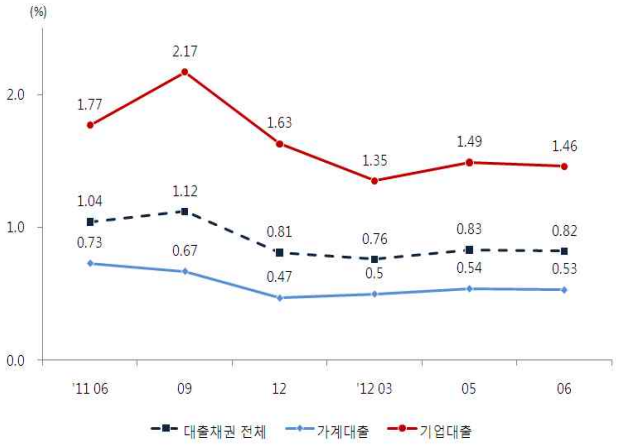
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[1]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 하락으로 전월대비 0.01%p 낮아진 0.82%를 기록함.

-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짐에 따라 0.01%p 하락한 0.53%를 나타냄.

〈그림 1〉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〈그림 2〉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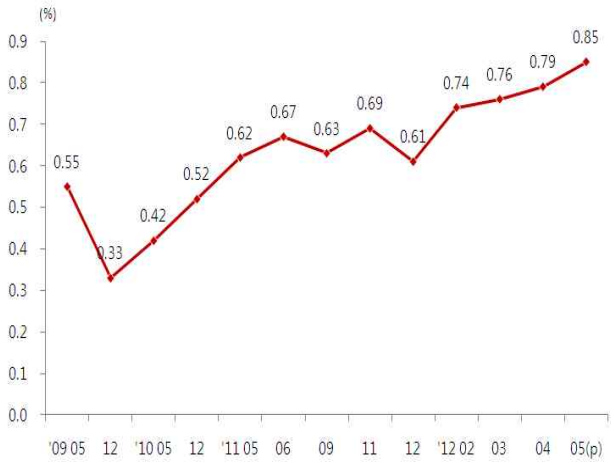
1) 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 기준임.

- 기업대출 연체율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과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0.03%p 낮아진 1.46%를 기록함.

■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계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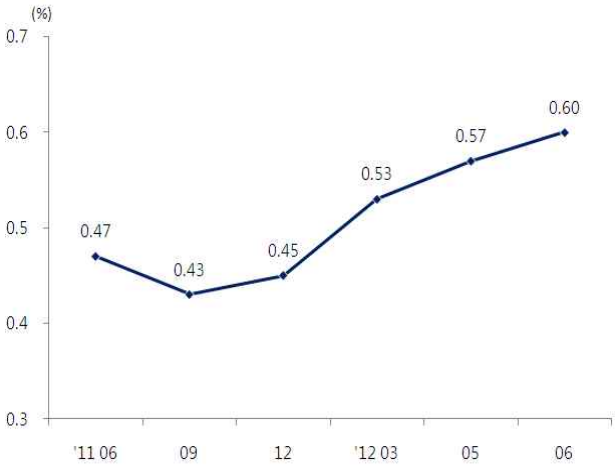
-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가계보험계약대출이 전체의 42.1%를 차지하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.
-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과 보험회사의 가계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.

〈그림 3〉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〈그림 4〉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(2012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, 금감원, 8/21)